

# “모험자본 유입 정책 긍정적… 코리아 프리미엄 ‘골든타임’”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간담회

“새정부 마켓프렌들리 정책 기조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 커져”

IMA요건 구체화·대체거래소 출범 거래 활성화 등 취임 2년반 성과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새 정부의 마켓프렌들리한 정책 기조 덕분에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코스피 5000은 국민적 담론을 통해 사회 구조적 틀을 바꿔야만 달성할 수 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이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취임 2년 반을 맞은 서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요건 구체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단기금융업 신규인가 시 완화된 요건의 유예 적용,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 분위기 조성,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자금 이동 기반

마련,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과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디딤펀드를 출시해 평균 6.7% 수익률과 약 2000억원의 수탁고를 달성했으며, 성과연동형 공모펀드 제도화를 통해 한국형 가치투자펀드, 얼리버드펀드 같은 신상품 출시도 이끌었다.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도 언급했다.

부동산PF 시장의 자금경색 위기 대응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1조8000억원)을 가동해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NCR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 부담을 덜어준 노력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선결과제 해결과 보완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ISA 비과세와 납입한도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입법 지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공모펀드 직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발행어음) 신규업무 진출 지원, 법인자금결제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밸류업 등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 회장은 제도 변화가 업계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출범하면 업계가 혁신적인 사업을 주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나 부자 감세라는 시각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주가가 오르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생활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되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만 과거처럼 변동성이 큰 테마나 전략 상품을 무분별하게 권하는 일은 지양해야 하며,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맞춘 안정적 상품과 분산투자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 기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협회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 지금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당장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변수도 많은 만큼 9~10월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금감원 쪼개기, 금융사고 기민 대응 어려워 역효과”

금감원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  
작년 수조원 손실 ‘홍콩 ELS’ 사례  
‘통합조직 체계’의 중요성 보여줘

‘금융감독원 쪼개기’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내부 조직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금융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걱정이다.

17일 금감원 한 국장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감독과 검사, 인허가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위에서만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기능을 잘라내면, 오히려 기민한 대응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조 원대 손실을 낳은 홍콩 ELS 사태는 금감원의 통합 조

직 체계가 위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당시엔 분쟁조정 인력뿐 아니라 검사국 인력 등 전사적으로 9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96%에 달하는 자율 배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내부에서는 “조직이 분리되면 이런 유기적인 협업이 불가능해지고,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한다.

특히 금감원 내부 실무진은 금소원이 독립 조직으로 분리될 경우,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금감원은 순환근무제를 통해 분쟁조정, 검사, 제재 등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하며 업무 연계성과 금융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복합 민원이나 디지털 기반 금융상품 관

련 분쟁에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직이 쪼개지면 정보 교류가 단절되거나 협업 체계가 지연돼 실질적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젊은 조사역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10년차 이하 조사역인 A씨는 “조직이 쪼개지면 사실상 ‘영원히 비선호 조직 고령’이라는 의미”라며 “검사도 못하고 전문성도 쌓을 수 없다면 조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번엔 민원 조직 갔으니 다음엔 다른 부서 배치해줄게’라는 식의 조율이 가능했지만, 조직이 나뉘면 애초에 그런 기회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저연차 조사역 B씨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격들을 가진 직원들이 민원부서에 배치되게 되면 이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금감원 인재 유출과 직결된다”며 책상 앞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과 함께 금감위 신설, 금감원·금소원 편제안, 금감위원장 인사 등을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개편의 목적이 실질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조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 검사 기능 연계, 내부 인사 연동 방안까지 포함된 ‘기능 중심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한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UBP) 주요 임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 스위스 운용사 UBP 자산관리 분야 맞손

한국투자증권이 스위스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UBP)와 자산관리(WM) 분야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UBP는 지난 16일 니콜라스 팔라 글로벌 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해 스텔루트 에드가 아시아 전략대표, 위펑 나 아시아 자산운용 대표, 프란시스 리 아시아 부문장 등 핵심 임원진이 방한해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함께 프라이빗 뱅킹(PB),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제공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UBP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 뱅크이자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전 세계 23개국에서 초고액자산가(UHNW) 및 패밀리오피스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투자 상품 운용과 공급에도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PB 인력 및 패밀리오피스 관련 교류를 강화하고, UBP의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를 접목해 자산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고액자산가의 투자 수요에 맞춘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PB 서비스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허정윤 기자

## 반도체株 상승세… ETF 수익도 ‘고공행진’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업황 개선  
국내선 SK하이닉스 주가 급등 영향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 덕분이다. 대만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의 업황 개선, 반도체 수급 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달러 돌파,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감 등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47%), ‘TIGER 200IT레버리지’ ETF(45%),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42%) 등 반도체 관련 ETF들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0~5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도 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반도체 ETF 강세는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ETF에서 SK하이닉스 비중은 20% 안팎으로, 자본시장법상 개별 종목 편입 한도가 30%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32%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19%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장중 최고가인 30만6500원을 기록하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ETF 이미지.

‘30만 닥스’를 달성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18%)도 올랐지만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이를 뛰어넘었다.

지난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5만원으로 상

향 조정하면서 “최근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관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HBM 반도체 관련 수요도 기존처럼 양호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하반기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7만5000원으로 유지하며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HBM 상황은 현재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컨벤셔널 D램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황이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세계반도체무역통계(WSTS)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76.8% 성장한 163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